

설레지만 조심스럽게...도서관·미술관 부분 개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문을 닫았던 도서관, 미술관 등이 문을 열고 조심스레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2일부터 예약제를 통해 본관을 비롯해 시립사건관, 하정웅미술관 3곳 모두 운영에 들어갔다. 하루 예약 관객은 180명으로 제한하며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QR코드로 인증하고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미술관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 본관에서는 5개국 24명(팀)이 참여한 5·18 40주년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과 김천일, 김억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지역 중진작가 초대전 '리플레이-남도권문록'전이 열리고 있다.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올해 20주년을 맞는 '하정웅정년작가 초대전 빛 2020'전이 열리고 있다. 참여작가는 부지현·임용현·홍기원·정재훈 작가다. 그밖에 사진전시관에서는 김홍빈 산악사진전 '산이 살아있다'가 열리고 있다. 각 전시장 모습과 작가 인터뷰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은 부분 개관한다. 광주시립도서관 산수·무등·사직 도서관은 책을 대출하는 자료실은 개관을 했지만 열람실은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다. 상록도서관 등 각 구립도서관도 도서대출반납, 회원증 발급, 자료 복사 등의 업무를 제공하며 역시 자료실 착석은 금지한다.

광주문화재단은 홀로그램극장과 미디어338 등 전시 관련 시설은 개관했다.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디어338에서 열리는 기획전 '인공 공감(Artificial Empathy)'은 사전 온라인예약(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http://gimp.kr))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놀이터와 디지털갤러리는 내부 공사로 인해 오는 11월 7일까지 잠정 휴관한다.

아울러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전통문화관은 하반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월요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빛고을레저콘서트 등은 공연 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문화관은 토요상설공연, 무등풍류 댄스 등에 대해 무관객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을 진행하며 전통문화예술강좌는 10명 이내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정상적으로 전당이 가동되더라도 일부 대면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

광주시립미술관 22일부터 예약제 운영 도서관 자료실 개관... 열람실은 불가능

광주문화재단, '홀로그램극장' 등 오픈 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시네마' 등 재개

유스퀘어 문화관 50명 제한 대관 공연 국립광주박물관은 27일까지 휴관

라인 콘텐츠로 운영될 전망이다. 9월 중 관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빅도어시네마', 야외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창작작 '2020 야광전당', 복합 3·4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연대의 흙씨' 등이다. 인문강좌와 어린이체험관 등도 운영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인원 수가 제한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29일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를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이며 공연을 재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작곡가 정

재형이 '산책'을 주제로 만든 자작곡을 들려주며, KBS 이상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문예회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공연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지난 21일부터 관객을 관객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 대관 공연을 재개했다. 22일에는 빛고을 실내악 페스티벌을 열고, 25일 김옥길 호른 독주회, 26일 정운정 피아노 독주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소리꾼이 들려주는 클래식(27일), 테너 고규남 독주회(28일), 소프라노 이소정 독주회(29일) 등도 선보인다.

기획공연으로는 오는 10월 29일 김세일 마르쿠스 하들라 듀오 리사이틀 '시인의 사랑'을 준비했다.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작품24', '벨사자르, 작품57' 등을 들려준다.

반면 광주국립박물관은 중앙박물관 등 내부 자치에 따라 27일까지 휴관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6인의 시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명품 사진전'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시 중이다. 사진작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5·18 40주년 기념전 '별이 된 사람들'



서양화가 류미숙(56) 작가의 작품에는 스토리가 있다. 바로 4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다. 50년간 낫잡 전 문점을 운영했던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며 접한 수많은 접시와 밥그릇에서 그녀는 엄마의 인생을 만났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을 손님들의 삶과도 조우했다. 당장 엄마의 밥그릇과 접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과 새와 나무를 그리고 암벽타기, 패러글라이딩 등 '엄마의 꿈'도 함께 담았다. 접시를 캔버스에 붙이는 작업은 지난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학(전남대 서양화과)을 졸업한 후 지난

접시와 밥그릇에 담은 '엄마의 꿈'

류미숙 작가 '엄마의 밥상', 10월 14일까지 생각상자갤러리 초대전

4월에야 전남도청갤러리에서 열었던 첫 개인전에서 이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 행복했다. 코로나와 중이였지만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주는 '엄마의 이야기'는 전시장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류 작가가 광주 생각상자갤러리(동구 남문로 628) 초대를 받아 오는 10월 14일까지 '엄마의 밥상'전을 연다. 몇년 전부터 '오롯이'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되면서 작업에 몰두해온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을 포함해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기본 작업 소재는 접시와 밥그릇이지만,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싶은 소재는 무궁무진해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엄마의 꿈' 시리즈는 어미 닭과 이제 막 부화하기 시작한 병아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캔버스 가운데를 파낸 자리에 알록달록 색감을 입히고,

노란 병아리를 그려넣은 엄마의 밥그릇을 넣어 입체감을 살린 작품은 언제나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의 따스한 품 안을 떠올리게 한다. 또 부피감 있는 다양한 색감의 물감을 캔버스에 부착해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도 눈에 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엄마가 늘 한몸처럼 차고 다니던 전대와 지갑, 통장을 오브제로 사용한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삼남매를 키워 온 엄마의 인생이다. 그밖에 식당에서 손님들이 사용하던 화투짜도 작품으로 변신했다. 화투 한장 한장에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넣은 후 식사 때 떡을 내오던 접시에 붙였다.

류 작가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 계획이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릇을 소재로도 작업해 볼 생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불 작 '취약할 의향'

광주비엔날레-러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네지 중앙전시관 공동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이불 작가 전시

(재)광주비엔날레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네지 중앙전시관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이불 작가 전시를 협력해 추진한다. 재단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불 작가 전시를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네지 중앙전시관과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추후 한국의 동시대 미술이 러시아에 알려지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네지 중앙전시관 측은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러시아 문화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불 작가는 모더니즘 역사가 추구하고 반영해온 유토피아에 천착하는 'UTOPIA SAVED(유토피아 세이브드)'라는 타이틀로 오는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이수진 홍익대 교수가 공동 큐레이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불 작가가 2005년부터 제작한 설치, 조각, 드로잉 등을 비롯해 작가의 영감과 상상력을 자극했던 1910년대-1930년대 러시아 작품, 미공개작들을 함께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의 프리뷰는 11월 11-14일까지 개최되는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과 연계해 마련된다.

11월 11일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미술과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불 작가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로 마미 카타오카 도쿄 모리 미술관장, 스테파니 로렌탈 베를린 그로피우스바우 미술관장, 이불 작가와 김선정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0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대상 권혁만 작 '추억남기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일환인 '2020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에서 권혁만의 '추억남기기' (사진)가 대상을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2020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심사를 통해 16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민족,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3번째를 맞았다. 올해는 총 144점이 접수됐으며, 98점이 접수되었던 작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금상 '우리는 멧쟁이' (김중수), '태극기와 국기' (최인욱) ▲은상 '연동행렬' (라성민), '아리랑'

(송준섭), '전통혼례식' (우정열), ▲장려상 '절 배우는 외국 아이들' (박문호), '한복 너무 예뻐요' (박소연), '떡메치는 외국인' (박희정), '한글 실력 뽐내보기' (송은희), '나도 할수 있어요' (안경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유림), '우리 함께 가자' (이동화), '장승있는 풍경' (정유철), '꿈이 있어요' (최석우), '청동음성밭' (최재영)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진들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은 대상 100만원(1점) 등 16개 작품에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된 사진들은 차기년도 문화다양성 관련 디자인 제작과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4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